

저는 담배는 기호식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담배를 피우는 사람도 있지만 또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 가운데 저는 지금 담배를 피우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도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에게 피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라고 하는것은 먼저 냄새입니다. 담배 냄새는 담배를 피우고 있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피우지 않는 사람은 참을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또 자신이 담배를 피우는것보다 옆사람이 더욱 피해가 크게 발생합니다. 때문에 회사나 레스토랑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해야합니다. 그리고 버스나 전철등은 담배를 피울수 있는 곳을 준비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차별을 말합니다. 또 담배의 광고는 텔레비전의 방송시간을 아이들이 잠자는 시간에 방송한다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방송시간을 심야로 하는것 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볼수 없기 때문에 악영향을 받을수 없습니다. 방송을 못하게 한다면 담배회사등지에서 반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담배회사가 경제적 손실을 입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무조건적 금지보다 서로가 대화하여 개선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